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기쁨

김은혜*

최고의 교수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학생이 관심을 갖는 대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비판적 학습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이라 부른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피드백을 받는데, 교수들은 이를 지켜보며 학생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켄 베인,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중에서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저는 가르치는 내용에만 충실하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에게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는 지식,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지식은 아무런 학습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워크숍’에서 저의 강의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의 교감을 마음에 두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예틀 충분히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지적과 창의적 교수법에서 본 강의 진행은 획일적이고 지루하던 저의 강의 스타일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비교수자 양성과정 워크숍 이후 연구실에서 ‘비만이 유도하는 발달장애와 신경발달 미숙’에 관한 논문 발표를 하였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터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분자세포유전학실험실 박사후과정

이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만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몸무게 감소만으로 비만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미리 만들어서 누가 대답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이 다음 실험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실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이 실험을 우리 연구에 어떻게 응용하는 것이 좋은가 등을 질문하면서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풀거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오랜만에 강의자로서 참으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끝내면서 제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는 졌나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도착점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대답이었는데, 누구보다 앞서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구를 향해 전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남고 인상적이었다고 연구실원들이 제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이번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은 제게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즐거움에 대한, 거북이가 내 딛었던 한 걸음과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강의에서 잘 활용하고 응용하고 계속해서 교수자로서 배워가야겠지요. 이러한 행복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섬겨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